



우리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빛을 전하자



포콜라레
천주교마리아사업회

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.
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.
(에페소 5,8-9)



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세요.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들에게 편지를 쓰세요.



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하느님의 자녀답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빛을 간직하게 된다고, 에페소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시 기억시켜 주세요.



그들에게 늘 사랑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도와주면서 착하게 지내라고 용기를 주세요.



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 사는 레아의 경험담이에요.
하루는 엄마와 함께 집에 있는데,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.



문을 열었더니 몹시 야윈 아이가 서 있었어요.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하면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.



레아는 '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계신다'는 말을 기억하고는 엄마에게 "우리 저녁식사를 주면 어떨까요?"라고 청했어요. 그렇게 음식을 나누고 나니, 레아와 엄마는 아주 기뻐했어요.